당장 확인될 수 있는 변화

(마태복음 5:8~12)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복'
팔복은 여덟 가지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이 하나의 복을 여덟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팔복이라고 일컫는 예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의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이 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받으시고 신이 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게 됩니다.
우리는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전제를 빼놓는다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치 명현현상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로 확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여섯 번째 복으로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이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우리가 입에 넣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김치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보면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치도 깨끗하고 테이블도 깨끗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음으로써 불결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할 대상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의 몸이 생길 때에 심장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 할 때부터 나이가 들어 죽게 되어 멈출 때까지 마음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채워지기 위한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곳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을 담아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계속해서 흡입력을 가지게 되고 이 흡입력은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흡입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은 채워줄 수 있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의 이름을 붙들고 흡입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잡았으니 실제로 얻고자 추구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서의 흡입과 추구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붙잡는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청결함과 불결함이 결정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하얀 테이블 위에 그릇에 담지 않은 김치 한포기를 얹어놓는 것 같은 불결한 상황이 됩니다. 마음에서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았기에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마음이 불결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마음에서 자녀라는 이름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예배당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마음이 불결해졌기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십자가에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했다면 반드시 마음에서는 청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핍감은 붙잡은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은 마음에서 결핍감이 생기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인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에 결핍감이 생기면 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형통을 붙잡고 있을 때에 결핍감이 생기면 자녀가 형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핍감은 본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갖가지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 건강, 배우자, 승진 등의 문제로 결핍감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돈에 대한 결핍감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붙잡고 돈에 대해서 죽고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건강에 대해 죽고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조차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대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밋밋하게 목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임을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고 느끼게 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평강과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일곱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곧잘 오해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稱義) 곧 의롭다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서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동일시의 믿

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화평하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 또한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협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를 생각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으로 언급된 10절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생기는 명현현상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팔복 중 마지막 복은 내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것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덩실덩실 춤추시게끔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스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돈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실제 돈을 과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과녁으로 삼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름을 담고 과녁을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구조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고 과녁을 삼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만족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추구가 끊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침 흘리며 가지려는 가치들에 대해서 군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추구가 없는 사람을 경쟁과 싸움으로 이끌어 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욕심이 없다면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에 들어있는 핵심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조차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자리 자체가 배설물처럼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기에 불필요한 대상이 되었고, 빨리 빼내고자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권력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는 세상 가치들의 이름을 과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온갖 부정부패가 생기고 온갖 죄악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중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져도 무한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배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화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평(和平)의 화목할 화(和)를 보면 벼 화(禾)에 입 구(口)가 붙어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쌀이 공평하면 싸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대상들은 균일하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생활화해 나갈 때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써의 즉각적인 변화는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가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이 돈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돈 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는 대상을 마음에 담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중단시키고 도전하는 경쟁을 무력화 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부르시며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여덟 번째 복으로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나타난 일곱 가지의 복이 상징하는 믿음의 명현현상 전부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의에 대한 언급은 앞서 네 번째 복이었던 6절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장갑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상황을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편 10절에서 나타난 의는 십자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믿음의 명현현상을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박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를 원문에서 보면 사냥꾼에게 들짐승이 쫓기는 것처럼 적군에 의해서 쫓기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 명현현상을 통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끊어지면 일곱 가지 명현현상도 중단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시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며 세상에 대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온유함이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자녀의 상태가 불만스럽다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된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시선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긴 문제, 돈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줄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과도 같음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사냥꾼이 와서 십자가를 향하는 나의 시선을 끊으려고 해도 결코 끊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십자가 생활화에서 비롯된 일곱 가지 명현현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여 십자가를 향하는 시선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박해임을 깨닫고 더욱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 당했던 박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물리적 박해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박해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사냥꾼이 들짐승을 쫓듯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이 마음의 박해를 견디며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덟 가지의 은혜의 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기 스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단 한가지의 소원만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유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